

위대한 천재 화가들의 비밀

글 | 정현이 _ 한성대학교 회화과 교수 haema@hansung.ac.kr

호크니, '지식의 비밀'에서 폭탄 주장

몇 해 전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한 작가가 <지식의 비밀>이란 책을 써서 미술사학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일이 있다. 호크니는 사진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대상의 부분 사진들을 찍은 후 이를 콜라주하여 대상을 다시 조합해낸 사진 콜라주 초상으로 유명한 작가였는데 자신의 책 속에서, "서양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장들이 실은 이미 초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광학 기재들을 이용하여 정확한 이미지를 얻었다"는 폭탄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서양미술사학의 방법론적 기초가 르네상스 미술 연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에 대한 서양 미술사학자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원근법이라는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게 재현해 낼 수 있게 된 과정에서 '천재'들의 작품이 연이어 탄생하였고, 이들 거장들의 작품세계야말로 이미지 제작을 비로소 오늘날의 '예

술'의 위치로 끌어올린 위대한 업적으로 칭송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위대한 작가들이 모두 비밀리에 광학기재, 특히 '카메라 루시다'에 해당하는 거울 렌즈의 힘을 기술적으로 이용하였다니 마치 그 동안의 '예술'이 모두 '기술'로 전락해버리기도 한 듯이 자부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을 만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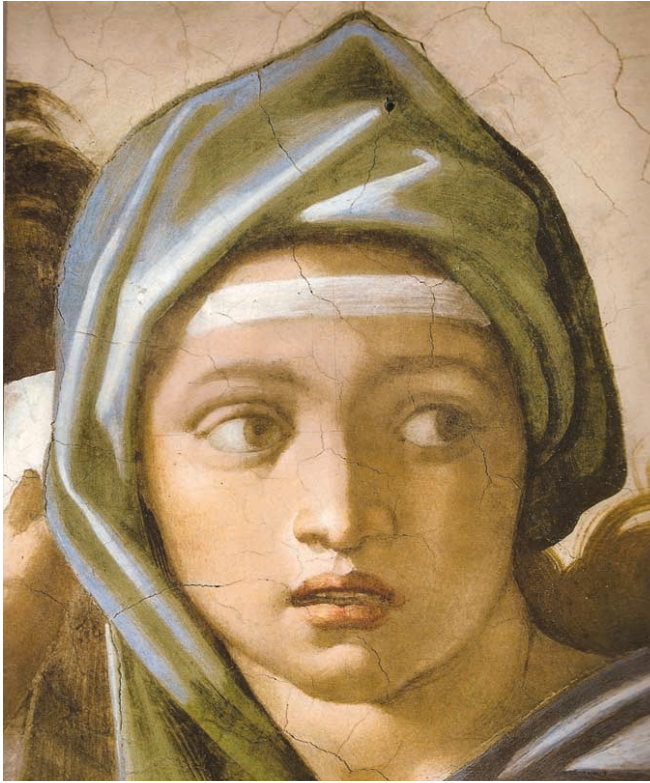
사실 호크니의 문제의식은 미술사학자가 아닌 작가로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앙그르의 회고전에 갔다가 너무나도 정교한 초상화들에 감탄하면서도 이러한 정교함이 광학적 기재의 도움이 없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한다. 예를 들면 앙그르의 초상화에 그려진 천의 접힌 주름부분의 패턴들은 너무나도 정교한데, 앙그르가 이런 그림들을 완성한 시간은 턱없이 짧았다는 것이다. 그는 앙그르 시대에는 이미 사진기가 발명되었으므로 앙그르가 사진기법을 활용했으리란 생각을 하면서 앙그르 이전 시대의 그림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하였고, 화가들이 정교함을 위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광학 기재들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발다사르 카스터글리온의 초상(라파엘)

창작 '예술'이 아닌 렌즈의 힘을 이용한 '기술'이다?

그의 결론은 놀라운 것이었다. 1839년에 발명된 사진술은 정착액을 써서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기술이었을 뿐 렌즈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반영시키는 기법은 이미 1400년대초부터 화가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었으며, 화가들은 암암리에 이러한 광학기재들을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모두가 다 이러한 기재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1400년대 이후 1900년대까지의 미술사는 눈으로 보고 그린 그림들과 광학기재들을 이용해 그린 그림들이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는 광학기재들을 사용하여 그리기에 쉬운 유화보다 일회적인 기법인 프레스코를 선호해서 그의 <천지창조>에서 광학기재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라파엘은 종종 광학기재를 사용하여 더욱 정교하고 실재같은 이미지를 얻었다고 하였다. 화가로서의 미켈란젤로가 인체의 비례 표현이나 세부 묘사에 있어 조각작품에 비해 한결 미숙하였다는 기존의 지적들이 다른 각도에



델피의 예언자 - 천지창조 부분(미켈란젤로)



마담 자크루이 르블랑(앵그르)

서 조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호크니는 이러한 기술적 실체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가 부족한 것은 첫째, 옛 장인들이 광학기재들의 사용법을 비밀스러운 기술로 간주하여 노출을 꺼렸다는 점, 그리고 둘째, 사진의 발명에 이어 전개된 모더니즘 회화 이후 광학적 도구 사용이나 기술 전송이 단절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변해서 화가들의 기법이 발전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의 발전이 기법을 발전시키고 세계를 보는 방식을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르네상스 시대 작가들이 광학 기재들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작품세계가 빛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그림이 단순히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기술만은 아니었고, 또 여전히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호크니의 책을 읽는 미술사학자들이 '아픈'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호크니의 책은 어려운 이론이나 학술용어도 없고 각주도 없다. 그저 동네 화가 아저씨가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듯이 구성되어 있는데 참으로 재미있으면서도 미술사학의 커다란 전제들을 뒤집어놓는다. 화가가 되어 작품을 창작하는 대신에 화가나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직업을 택한 미술사학자들은 화가들의 기법이나 기술에 대해서 찬탄을 할 수는 있어도 기술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아마도 특히 르네상스 전문가라면 더구나 허를 찔린 기분이 들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재현의 방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재현의 도구들이 세계를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과연 1980년대 이후의 컴퓨터의 발전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 컴퓨터는 광학의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현재성을 부정한다. 광학의 시대에 이미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동시적이고 또 연속되어야만 하는데, 컴퓨터가 제공하는 전자 영토 속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더 이상 예전처럼 일회적이지 않다.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디지털 사진은 예전의 아날로그 사진이 가지고 있던 소위 '법적 효력', 즉 증거의 능력을 상실했다. 호크니는 이러한 상황을 몹시도 반긴다. "광학의 폭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디지털 영화들은 회화의 하위 장르가 될 것이며, 우리 앞에 흥미진진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까지 단언한다. 과연 그럴까? 그런데 이쯤에서 나는 서양의 화가들이 왜 그들의 도구들에 대해 쉬쉬했는지 알 것 같다. 어쩌면 예술가들은 시대의 도구를 통해서일망정 시대의 도구주의에 맞서는 집단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철학이 도구를 낳는지 도구가 철학을 낳는지 하는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결정을 해야 한다면, 예술가는 끝내 세계관쪽에 마지막까지 서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㉔



글쓴이는 이화여대 철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시립대학원에서 미술이론과 비평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삼성미술문화재단 호암갤러리 선임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